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II)

- 충남지역 불교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간의
불교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권정만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박사수료)

국문요약

본 연구는 같은 종교 또는 서로 상이한 종교를 지닌 두 대화 상대자간의 인식 비교 그리고 이를 통한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즉, 불교 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들간의 불교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비교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충남지역 불교종립대학과 일반대학간의 범주적 태도를 고찰해 보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한편, 최근 불교 종립대학에서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와 이미지 관련 연구의 적용 확대 등에 따라 본 연구에서의 인식 비교 연구는 그 의의 및 적용 가능성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이런 배경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특성용어를 통해 도출된 불교이미지의 개념적 구성요인의 특성용어의 인식 비교 분석과 개념적 구성요인들간의 불교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 간의 인식 비교를 평균비교를 통해 시도해 보고 더 나아가, 불교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제고와 제도적 측면에서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 제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 불교이미지, 불교 인식 차이,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

I. 서론

기독교는 해방 직후부터 두 가지 사업에 매진해 대중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다. 의료와 교육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업이었다. 기독교에 의해 수많은 미션스쿨들이 세워졌고, 여기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꾸준히 사회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반면, 불교계는 동국대, 금강대, 위덕대 3개 종립대학과 20여개 남짓의 중고등학교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교계에서의 교육사업에 대한 확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불교계에 의해 설립된 종립대학의 정체성은 ‘교육’이라는 고유적이며 핵심적인 특성을 논외로 한다면, ‘불교이념의 구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종단 및 재단에서는 학교에 재정적 지원과 인사로, 대학에서는 불교학과(전공)의 운영, 인성교육, 불교 및 종교관련 교육과정 운영, 불교 관련 행사 참석 등을 통해 ‘불교의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최근, 종교계의 종립대학, 특히 기독교 종립대학에서는 ‘정체성의 위기’와 ‘주인 없는 대학’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에서 기독교에서는 종립

대학의 정체성 확보에 대한 각종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불교계에서는 기독교에 비해 양적 차원에서도 적기도 하고, ‘정체성의 위기’와 관련된 논의는 미흡하다. 하지만, 기독교계 종립대학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위기’와 ‘주인 없는 대학’이 과연 기독교계 종립대학에서만 발생한다고 한정지을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직접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간접적으로나마 불교 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들간의 불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불교 종립대학에서도 언젠가는 찾아올 수 있는 ‘정체성의 위기’와 ‘주인 없는 대학’에 대한 최초의 논의라 할 수 있는 의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과연 불교이념을 구현하는 불교 종립대학의 대학생과 일반대학의 대학생들간에는 불교 인식의 차이가 어떤가를 살펴,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식 차이의 비교를 통해 대학생들에 대한 불교 인식에 관한 제고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논의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 및 유용성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이미지 차원의 연구를 차용해 진행된 특성용어를 통한 불교이미지에 선행연구(권정만, 2009)를 통해 도출된 개념적 인식 구성요인과 관련 특성용어의 불교 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들 간의 불교인식 차이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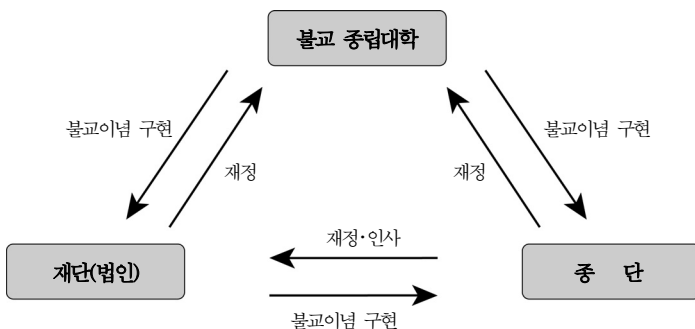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관해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 논의와 불교계 고등교육기관의 변천, 그리고 불교이미지의 개념적 구성요인을 살펴보고, 조사설계 및 방법에서는 본 연구를 위한 설문구성 및 통계방법, 설문의 분석 방법 등을 살피고, 조사분석에서는 불

교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평균비교를 통해 분석하여, 이에 대한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

불교 종립대학과 재단(법인), 종단은 재정, 인사, 불교이념 구현의 세 측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종단은 재단(법인)을 재정과 인사면에서 그리고 재단과 종단은 불교종립대학을 재정면에서 후원해주고, 그 뒷받침에서 불교 종립대학은 불교이념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통해 불교 종립대학의 불교 종립대학과 재단 그리고 종단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뒤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석묘주, 1989:89).



* 자료 : 석묘주, 1989, p.80. 재구성.

<그림 1> 재단, 종단간의 관계를 통한 살펴본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identity)

실로, 한국의 불교 종립대학은 일제하의 억압과 해방 이후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와 불교에 크게 기여했다. 20세기초 민족의 독립과 근대 시민사회로의 발전에 필요한 수많은 지도자를 양성해 냈다.

대학의 정관에 불교이념을 표방하고, 일부 종교관련 학부(전공)와 불교 관련 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법회와 몇 개의 필수나 교양과목 등을 운영하여 불교이념을 구현하는 대학은 직·간접적인 포교의 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다.

다만, 해방 이후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들이 신설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해 대학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학들은 점점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는 불교 종립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학생수를 늘리고 대학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불교적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자, 교육과 행정, 문화 전반에서 일반대학과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워져 종립대학의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일부 제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 불교이념 구현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¹⁾

1) 이러한 종립대학의 정체성 위기는 기독교 대학의 경우 더욱더 심화되어 ‘주인없는 대학’이라 칭하는 대학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위기의 징후와 그 원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조용훈, 2003). 현재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 위기의 징후는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먼저, 대학의 지속적 분위기가 반종교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둘째, 불교 종립대학의 학문적 수월성, 도덕적 수월성, 그리고 종교적 열정이 사라짐과 동시에 불교 종립대학에 입학하는 불교인의 신입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셋째, 불교 종립대학 내에 불교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넷째, 대학 구성원들의 포교적 열정과 헌신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 위기의 원인으로는 세속적 세계관, 정부의 통제와 고등교육정책의 변화, 대학의 거대화, 잘못된 불교에 대한 믿음과 학문 관계의 왜곡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불교계 고등교육기관의 변천²⁾

지난 세기 초반 불교계의 교육인식은 여타 종교 및 단체에 견주어 매우 선진적이었다. 불교계 지식인들의 앞선 교육 인식은 당시 불교계 지식인의 지형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불교계 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육인식은 각성된 불교지식들에 의해 주도되어 지방교육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불교계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지방 사찰의 살림살이에도 불구하고 미래 불교에 대한 과제가 교육에 있음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학교를 세웠다.

이러한 선진적인 불교계 지식인들의 예측은 적중하였고, 이들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출된 불교인들은 사회 각 방면에서 광범위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은 지방의 주요 사찰에서 운영하거나 몇몇 사찰들의 연합에 의해 이뤄진 것들이었다. 그중에서는 일본 승려들의 지원과 관심에 의해 이루어진 기초 교육기관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은 조선 승려들의 교육기관에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물론 본사급 사찰이 아니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불교 지식인들의 존재유무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원이 없는 사찰은 이웃 사찰의 해당 강원에 학생을 보내거나 아니면 몇몇 사찰들이 연합하여 학교를 세우기도 했다. 몇몇 사찰의 연합에 의해 세워진 강원들은 교수와 재정 및 학생 수급을 분담하여 유지했다.

불교계가 서울 동대문 밖 원흥사에 세운 명진학교(1906-1909)는 이후 불교사범학교를 거쳐 불교고등강숙(1910-1914)과 불교중앙학림(1915-1922)으로 이어졌고, 다시 혜화동에 자립한 불관묘로 자리를 옮겼다. 그뒤 불교중앙학림은 1919년의 기미독립운동으로 인해 1922년 9월 강제 폐를 당한

2) 고영섭(2009), 불교계의 해인-마산대학(1946-1967) 경영, 한국선학, 제22호, pp.390-398 참조.

뒤 불교학원(1922.9-1928.2)의 단계를 거쳐 1928년 불교전수학교로 개명하였다. 이어 1930년에 중앙불교전문학교로 승격하였다. 1940년에는 해화전문학교로 개명하였다. 일제의 문화정치가 극성했던 1944년에는 총독부에 의해 폐교를 당하였다가 다시 개교하여 1946년에 중구 남산 필동으로 옮겨갔다.

해방 이전 우리나라 기독교 사학들은 위의 불교계 교육기관보다 좋은 조건에서 학교를 개창할 수 있었다. 기독교계 사학들은 해외선교사들의 지원에 힘입어 연세대와 이화여대 및 숭실대를 비롯한 다수 학교를 창학하였다. 이와 달리 불교계와 천도교 재산의 학교들은 열악한 국내 자본으로 어렵게 개교하였다. 특히 해방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동국대학과 고려대학 같은 대표적 사학들은 불교계와 천도교 재단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졌다.

구한말 이래 불교계 교육기관은 20여개에 이르렀다. 이 집계는 불교계가 매우 선진적인 교육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각 지역의 주요 사찰들은 단일 혹은 몇몇 사찰들과 연합하여 초급대학 정도의 강원으로 개설하였다. 불교계가 운영하였다는 이들 지방교육기관은 한양 중앙에 세워진 명진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유지되었다. 하지만 총독부의 사찰령 반포 이후 교단의 분열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폐교당하고 말았다.

동국대학교 이외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최범술 등 해인사가 운영하였던 불교 고등교육기관 해인-마산대학(1946-1967)과 이후 세워진 중앙승가대학(1979-), 학교법인 보문학원(안양 보장사)이 운영하는 서울불교대학대학원(2002-), 태고종이 함께 운영하는 동방대학원대학(2005-), 천태종이 운영하는 금강대학교(2003-), 진각종이 운영하는 위덕대학교(1996-) 등이 있다. 그밖에도 교육부가 인가하는 대학은 아니지만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1개 승가대학과 15개 비구승가대학 및 6개 비구니 승가대학 그리고 태고종에서 운영하는 선암사강원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동방불교대학, 천태종에서 운영하는 구인사 강원 및 진각종 통리원이 운영한 진각대학 등이 대학에 준

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불교이미지의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어떤 대상에 대한 특정 태도는 이 대상에 대한 특정한 행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많은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입증하고, 합리적 행동이론(the theory of reasoned action)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행동은 행동 의도(behavioral intention)에 의해 결정되며, 행동 의도는 다시 태도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³⁾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사람의 태도를 가늠해 보는 것은 이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즉,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는 대화 당사자들의 이 대상에 대한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을 결정한다.

이와 같이, 한 개인 또는 집단의 자기 종교 및 타 종교에 대한 태도는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잘 알려진 사실이며 어떤 형태로든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이장송·김성경·정현숙, 2003:264-265).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이미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종교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비교종교학적 차원에서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 파악은 물론, 특정 종교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연구할 수 있다.⁴⁾ 물론 불교에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불교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⁵⁾ 이미지의 적용 수준이 한정이 없다고

3) 주관적 규범이란 어떤 행동에 대한 중요한 타인이나 집단의 반응에 대해 믿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동기를 뜻한다.

4) 특히, 기독교 분야가 활발하며, 이를 통한 교세 확장 및 이미지 관리 전략 등을 고려하고 있다.

가정한다면, ‘불교이미지(Buddhism Image)’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명명작업으로 인한 불교이미지 분석을 통해 불교이미지에 관한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도출은 물론 설문자 특성(특히, 종립대학과 일반대학간 대학생)에 따른 불교이미지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전제와 연구의 의도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특성용어를 통한 불교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권정만, 2009)를 통해⁵⁾ 도출된 4개 영역과 22개의 특성용어별로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평균비교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추출된 특성용어를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와 낮은 용어로 구분하여 이들을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하여 그 추출된 특성용어의 범주화를 고려하고, 이들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여, 추출된 요인을 통해 불교이미지의 인식개념적 구성요인을 검증해 보고 명명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불교이미지의 인식개념적 구성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
- 5) 윤원철(2007)은 ‘실제로 사람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가지고 불교를 이야기 하여야 한다.’ 즉, 불교교리보다는 불교라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하는 실제 모습으로써 만들어지는 불교를 들여다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 6) 불교이미지도 역시, 상술한 바와 같은 알버트와 휘튼(Albert & Whetten, 1985) 논거에 따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 핵심적인 성격을 가지며, 비교되는 타종교(기독교, 천주교 등)와 구별되는 독특성이 있으며, 시간적으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영속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불교이미지를 측정함에 있어 선행연구 중에서 기업이미지, 조직이미지, 기독교이미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차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여, 불교 관련 특성용어 풀(Pool) 중에서 1차적 검토 및 필터링을 통해 46개의 특성용어를 추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 분석 및 호오도를 분석하여 도출한 연구이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권정만(2009)을 참고하기 바람.

〈표 1〉 불교이미지의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도출 및 명명화

구분		세부내용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	사찰 이미지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
	기대감	건전하다. 검소하다. 겸손하다. 깨끗하다. 부지런하다. 신중하다. 자비롭다. 자제력이 있다.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	비관계성	현실적이다. 자유롭다. 사회적이다. 민주적이다. 사교적이다. 생산적이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비과학성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 참고 : 권정만, 2009: 143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특성용어에 대한 신뢰도 및 요인분석을 통해 적절성이 높은 단어는 2가지 요인으로 묶임을 볼 수 있었다. 먼저, ‘겸손하다.’, ‘검소하다.’, ‘건전하다.’, ‘깨끗하다.’, ‘신중하다.’, ‘자제력이 있다.’, ‘자비롭다.’ ‘부지런하다.’는 「기대감」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는 「사찰이미지」로 명명하고자 한다.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의 경우에는 불교의 구성요소 중에서 일반적 분류법에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인적요인에 대한 기대감과 사찰이라는 그 대상이 일정부분 구체적인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대학생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대감, 즉, 불교신도(자)나 스님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과 사찰이미지의 경우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이며, 더불어 일반 스님 이외에 고승의 경우 이러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적절성이 낮은 단어도 역시 2가지 요인으로 묶임을 볼 수 있었다. 먼저, ‘사교적이다.’, ‘자유롭다.’, ‘사회적이다.’, ‘민주적이다.’, ‘생산적이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현실적이다.’가 「비관계성」으로 명명하고자 하며,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가 「비과학성」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결국, 불교이미지는 불교에 대한 개인적·사회적·종교적 이미지를 종합한

이미지라 할 수 있으며, 불교이미지는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불교의 구성 주체(절, 스님, 신도), 불교의 활동, 불교의 교리 등)을 통해 형성되어 만들어지는 불교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혹은 좋고 나쁨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이미지이다.

III. 조사설계 및 방법

1. 조사설계

이미지의 사전적 어원에 따른 이미지의 개념적 정의⁷⁾를 차치하고서도,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사진이나 영상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광범위적 의미는 인지처리 과정상에서 어떤 물체, 또는 일정한 형태가 없는 추상적인 것이며, 우리는 이를 인지처리 과정상에서 형상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인지하거나 인식한다. 또한 부가적으로 이미지에 가치를 부여하여 좋은 이미지, 나쁜 이미지라는 호오(好惡)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한편, 대부분의 이미지는 언어로 표현된다. 이러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용어 및 단어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동사로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아름답다.’, ‘따뜻하다.’, ‘깨끗하다.’, ‘부드럽다.’, ‘활동적이다.’, ‘추하다.’, ‘차갑다.’, ‘더럽다.’, ‘딱딱하다.’, ‘정적이다.’와 같이 표현되기도 하며, 이러한 특성단어들은 인지과정을 통해 처리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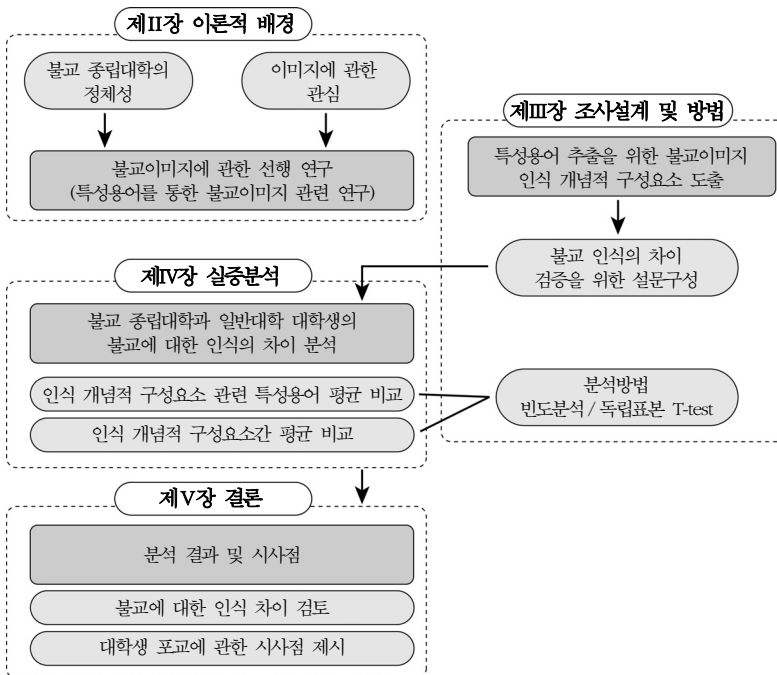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이미지는 언어적 자체의 모호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지처리과정에서의 모호성 및 애매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언어적 자체의 모

7) 이미지(image)의 어원적 정의는 닮음(resemblance), 즉 실재를 닮은꼴로 재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본다는 뜻을 내포하기도 하며, 환영, 꿈, 유령의 뜻으로도 쓰이며, 모방하다(to imitate)라는 뜻을 지니기도 하며, 상, 영상, 심상 등을 나타내기도 한다(유우열, 2006:13-14).

호성은 우리의 인지 및 인식과정상에서의 모호성과 애매성의 문제로 나타나며, 인지 및 인식처리과정에서의 모호성은 개별적 인지처리과정으로 인한 모호성으로 다양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서도 이미지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나 개념적 수준에서의 파악들이 있어왔으나, 상술한 이유로 인해 모호하며, 다양하게 진술되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특성 비교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 <그림 2>와 같은 연구의 흐름과 분석방법 및 통계방법을 활용하는 조사설계를 통해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그림 2〉 본 연구의 흐름 및 조사 설계

2. 조사방법

상술한 조사설계를 통해 설문을 작성하였다. 설문은 적절성 평가와 호오도 분석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참여자 특성을 파악하는 3부분으로 분류되는 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적절성과 호오도 분석은 7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표 2〉 설문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세부내용	척도	문항수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	사찰 이미지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	7점 척도	4개
	기대감	건전하다. 검소하다. 겸손하다. 깨끗하다. 부지런하다. 신중하다. 자비롭다. 자제력이 있다.	7점 척도	8개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	비관계성	현실적이다. 자유롭다. 사회적이다. 민주적이다. 사교적이다. 생산적이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7점 척도	8개
	비과학성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7점 척도	2개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전공, 학교의 특성	-	4개

이와 같이 구성된 설문을 가지고,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금강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양대학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이를 회수하였다.⁸⁾ 회수된 설문지는 201부가 되나, 이 중 통계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34부를 제외하고 총 177부를 가지고 조사설계에 의한 실증분석을 위해 SPSS 16.0버전(Version)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⁹⁾

8) 설문의 배포 및 회수 등에서 도움 주신 금강대학교 최종석, 서문성교수, 청양대학 윤석환 교수, 충남대학교 김시동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9) 설문 표본 추출의 중요성을 두말할 것이 없으나, 대학생으로 한정짓고 수업시간을 활용해서 수업 담당교수님께 부탁드린 것은 타 설문에 비해 설문 자체의 난이도를 고려하고, 설문에 대한 성실성을 제고하고자 함 때문이다. 이러한 의도된 설문배포로 인해 전체 대학생을 대표하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문 참여 대학생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으며, 특히, 불교종립대학의 대학생은 41.8%, 일반대학의 대학생은 58.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 설문 참여 대학생 현황표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성	74	41.8%	전공	불교학 전공	18	10.2%
	여성	103	58.2%		불교학 이외의 전공	159	89.8%
연령	20세 이하	44	24.9%	학교의 특성	금강대 (불교 종립대학)	74	41.8%
	21-22세	66	37.3%		충남대 (일반대학)	84	47.5%
	23-24세	35	19.8%		청양대 (일반대학)	19	10.7%
	25세 이상	32	18.1%				

는가에 대한 의문과 지역적, 성별적, 연령적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설문자 참여의 일반적 특성 중 지역, 성별, 연령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는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학교에 따른 평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의 경우 불교학 전공의 참여 대학생의 수가 적어 통계분석을 하지 않았다.

IV. 실증분석

1.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관련 특성용어의 불교종립대학 및 일반대학간 대학생의 평균 비교

1) 「사찰이미지」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높은 「사찰이미지」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보면,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 모두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사찰이미지」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사찰이미지」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

사찰이미지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역사가 깊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6.0676	0.99768
	일반대학 대학생	103	6.0874	0.95082
t값=-0.134 df=175 P=0.894				
예술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9324	1.10207
	일반대학 대학생	103	5.5825	1.26432
t값=1.915 df=175 P=0.057				
전통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6757	1.07408
	일반대학 대학생	103	5.7379	1.12860
t값=-0.369 df=175 P=0.713				
한국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3	5.5179	1.20233
	일반대학 대학생	103	5.379	1.03811
t값=-1.119 df=174 P=0.265				

2) 「기대감」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높은 「기대감」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보면, ‘건전하다.’, ‘검소하다’, ‘검손하다.’, ‘부지런하다.’, ‘자비롭다.’, ‘자제력이 있다.’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사찰이미지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깨끗하다.’, ‘신중하다’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기대감」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기대감」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

기대감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건전하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6351	1.09262
	일반대학 대학생	103	5.0874	1.147600
t값=2.703 df=175 P=0.008				
검소하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7162	1.09194
	일반대학 대학생	103	5.3010	1.44734
t값=2.079 df=175 P=0.039				
검손하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6486	1.09084
	일반대학 대학생	103	4.9126	1.52821
t값=3.739 df=174.996 P=0.000				
깨끗하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3919	1.33260
	일반대학 대학생	103	5.0194	1.44833
t값=1.744 df=175 P=0.083				

부지런하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9459	1.07132
	일반대학 대학생	102	5.2549	1.52007
$t_{값}=3.357 \quad df=173.877 \quad P=0.001$				
신중하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4324	1.08642
	일반대학 대학생	103	5.0680	1.38806
$t_{값}=1.882 \quad df=175 \quad P=0.062$				
자비롭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6.0676	1.11443
	일반대학 대학생	103	5.5728	1.31060
$t_{값}=2.634 \quad df=175 \quad P=0.009$				
자제력이 있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3	5.5000	1.19646
	일반대학 대학생	103	4.9515	1.53635
$t_{값}=2.563 \quad df=175 \quad P=0.011$				

2.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종립대학 및 비종립대학간 대학생의 평균 비교

1) 「비관계성」의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낮은 「비관계성」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보면, ‘명랑하다.’, ‘민주적이다.’, ‘사교적이다.’, ‘생산적이다.’, ‘자유롭다.’, ‘재미있다.’, ‘현실적이다.’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비관계성」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이다.’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비관계성」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비관계성」 관련 특성 용어의 인식의 차이

비관계성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명랑하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3514	1.59994
	일반대학 대학생	103	3.4854	1.42708
t값=3.784 df=175 P=0.000				
민주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5405	1.33642
	일반대학 대학생	103	4.0680	1.57344
t값=2.097 df=175 P=0.037				
사교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4730	1.55469
	일반대학 대학생	103	3.8738	1.65494
t값=2.436 df=175 P=0.016				
사회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5135	1.40686
	일반대학 대학생	103	4.2233	1.48147
t값=1.313 df=175 P=0.191				
생산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3	4.4658	1.50076
	일반대학 대학생	103	3.6602	1.58147
t값=3.400 df=174 P=0.001				
자유롭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8108	1.54100
	일반대학 대학생	103	3.9320	1.55464
t값=3.723 df=175 P=0.000				
재미있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7027	1.77293
	일반대학 대학생	103	3.5825	1.62411
t값=4.355 df=175 P=0.000				
현실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8243	1.51122
	일반대학 대학생	103	4.1845	1.53870
t값=2.749 df=175 P=0.007				

2) 「비과학성」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낮은 「비과학성」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보면,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모두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비과학성」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비과학성」 관련 특성용어의 인식의 차이

비과학성 관련 특성용어	학교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과학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6081	1.62023
	일반대학 대학생	103	3.3786	1.39408
t값=5.405 df=175 P=0.000				
미래지향적이다.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2703	1.54651
	일반대학 대학생	103	3.4158	1.62029
t값=3.513 df=173 P=0.001				

3. 불교이미지 개념적 구성요인의 불교 종립대학과 일반대학 간의 대학생 인식의 평균 비교

1)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구성 개념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높은 「사찰이미지」와 「기대감」 요인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보면, 「사찰이미지」는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사찰이미지」는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대감」는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높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기대감」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높은 요인의 인식의 차이

불교이미지 구성요소	학교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찰이미지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3	5.7945	0.85832
	일반대학 대학생	103	5.7864	0.83314
t값=0.063 df=174 P=0.950				
기대감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5.6672	0.82794
	일반대학 대학생	102	5.1409	1.16899
t값=3.496 df=173.917 P=0.001				

2) 적절성이 낮은 불교이미지 구성 개념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높은 「비관계성」과 「비과학성」 요인의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한 결과를 보면, 「비관계성」, 「비과학성」 모두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교특성에 적절성이 낮은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비관계성」, 「비과학성」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학교특성에 따른 불교이미지 인식 개념적 구성요인 중 적절성이 낮은 요인의 인식의 차이

불교이미지 구성요소	학교특성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비관계성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3	4.6045	1.21103
	일반대학 대학생	103	3.8762	1.14129
t값=4.066 df=174 P=0.000				
비과학성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	74	4.4392	1.44761
	일반대학 대학생	101	3.4010	1.20212
t값=5.174 df=173 P=0.000				

V.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 연구 결과의 요약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한 T-test에 의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를 정리해 보면 <표 10>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사찰이미지」 이미지를 제외하고는 불교 종립대학과 일반대학의 대학생간의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인 불교이념 구현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10> 학교특성에 따른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대한 인식 차이의 요약표

구분		세부내용	비고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	사찰 이미지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 국적이다.	
	기대감	건전하다. 검소하다. 겸손하다. 깨끗하다. 부 지런하다. 신중하다. 자비롭다. 자제력이 있다.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	비관계성	현실적이다. 자유롭다. 사회적이다. 민주적 이다. 사교적이다. 생산적이다. 명랑하다. 재미있다.	
	비과학성	과학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좀더 부연하면, 적절한성이 높은 특성용어 중 개념적 인식 구성요인인 「사찰이미지」는 불교 종립대학과 일반대학 대학생들간의 차이가 없음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인식적 수준에서의 개념적 정의 불교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찰 등 가시적인 이미지는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인식 수

준을 보이고 있어, 불교이미지 중 사찰과 관련된 이미지는 불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불교에서도 도심포교 및 도심 사찰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역사가 깊다.’, ‘예술적이다.’, ‘전통적이다.’, ‘한국적이다.’ 등을 불교이미지 중 「사찰이미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서 도심 포교 및 도심 사찰의 대학생들에 대한 포교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적절성이 높은 특성용어 중 「기대감」과 관련된 불교이미지의 인식 개념적 특성용어 중 ‘깨끗하다.’, ‘신중하다.’가 대학생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종립대학교 대학생이든 일반대학 대학생이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것에 비해 불교는 더욱더 깨끗하고, 신중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성이 낮은 특성용어의 경우 부정적인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불교의 활동성에 관해 사회 및 정치적 활동이나 포교활동, 봉사활동 등이 매우 미약하고, 영향력이 적어 이에 대해 매우 적절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특성용어 중 ‘사회적이다.’만 유일하게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이든 일반대학 대학생이든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교의 사회성을 매우 낮게 인식하여 불교의 사회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교 교리상으로는 과학적이고, 인과성을 지니고 있다고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과 일반대학 대학생들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절성이 낮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교 교리에 대한 불교 종립대학 대학생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

2) 시사점

불교이미지에 대해 역사성과 전통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일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인식상에서도 고착된 일부가 되지 않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불교이미지 중 일부는 고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일부일 것이며, 나머지 다른 불교이미지의 구성요소에 의해서 불교이미지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가치에 대한 인식도 변화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물론 이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대학생들에 한정된 그들의 불교이미지를 살펴보는 데 큰 의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 단어와 다양성을 지닌 불교라는 이미지를 살펴본다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불교라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신념적인 것이어서, 각자의 불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권정만, 2009:145).

한편, 종립대학 정체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종단(사찰)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불교 종립대학을 일반대학과 구분시켜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는 종단과의 관련성이다. 모든 불교 종립대학은 불교적 배경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여전히 불교 재단이나 불교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로부터 지도와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이념도 불교이념에 기초한다. 그리고 대학의 구성원들 특히 교수와 행정직원은 대부분이 불교인들로 종단 산하 사찰 등에 속해 있다. 따라서 대학과 사찰 사이의 관계 여부는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불교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과 종단의 관계가 밀접해져야 한다. 대학이 종단을 소외시키는 것은 자신의 정신적 동역자를 상실하는 것이고, 종단이 대학을 포교 대상에 제외시키는 것

은 대학을 완전히 세속문화에 내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과 종단은 각자의 사명과 역할이 다른 포교의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대학과 종단(사찰)은 각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여 상호협력해야 한다. 종단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대학은 스님과 신도의 지도자들의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계 종립대학에서는 교목실로 대부분 일반화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불교 종립대학의 경우 대학마다 달리 쓰고 있다. 동국대학교는 정각원, 금강대학교는 지관전, 위덕대학교는 정교실, 원광대학교는 대학교당으로 명명하고 있는데 학원의 포교화와 불교 관련 지도를 위해서만 이 아니라 대학과 사찰, 불교를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이들 기관의 장은 법회를 주최하고 경전공부를 지도할 수 있는 지도력은 물론 대학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대학 구성원들과 학문적 대화나 토론이 가능할 정도의 학문적 식견이 요구된다. 그리고 불교적 정체성과 관련하여 대학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이사회는 대학의 창학이념의 수호자인 동시에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방향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법적 기관이다. 이사회는 대학총장을 선임하는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교수나 행정직원의 임용, 대학재산의 관리, 그리고 재정적 안정을 통해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할 책임과 관리를 지닌다.

이러한 차원에서 불교 종립대학의 이사직은 명예직이 아닌 전문직이 되어야 하며, 훌륭한 대학총장을 선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대학총장

은 불교적 교육 이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인격적·도덕적으로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대학총장의 리더십을 후원해야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구성원들을, 예를 들면 교수나 행정직원, 학생, 동문, 그리고 지역사회나 종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대학총장으로 하여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사회는 대학 밖에서 대학과 지역사회는 물론 대학과 종단(사찰)을 상호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기본적 전제에 대한 의문 즉, ‘불교’에 이미지라는 개념 및 측정 방법의 적용 가능성의 한계를 고집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을 것이다. 즉, 이러한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 현재의 인문과학의 한계나 풍부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¹⁰⁾

또한, 각종 통제를 통해 외부효과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했다면 본 연구자의 책임을 밝히는 바이며,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불교이미지에 관한 인식 개념적 요소를 통해 인식의 비교하는 내용적 측면의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향후 연구과제는 불교이미지의 과

10) 이미지는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적절히 기능하는 기본 수단이 되어왔다. 우리의 마음 또는 의식의 총체란, 실제로는 이미지, 범주, 은유 및 환유 같은 것들의 그물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과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현실체를 대신해 주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현실의 일부만을 표상하고 있다. 이미지는 현실의 표피를 범주는 현실체 간의 유사성을 표상한다. 표상된 현실체의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표상되지 못한 부분은 아직도 우리 지식의 건너편에 숨어 있다.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인류의 오랜 역사를 성공적으로 지탱시켜 왔고,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해왔다는 점이다. 이 것들은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가라앉아서 거의 공리적인 지위를 누려왔다(유영옥, 2007:163).

정적 측면, 즉 불교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즉 불교이미지의 형성 영향요인 및 과정을 살펴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섭(2009), 불교계의 해인-마산대학(1946-1967) 경영, 한국선학, 제22호, pp.387-441.
- 권도갑(1993), 종립대학교 교회의 방향,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16,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pp.351-367.
- 권정만(2009), 대학생들의 불교이미지에 관한 연구, 불교학리뷰, 제6집, pp.117-151.
- 김계수(2007), New Amos 7.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대효(1995), 불교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교인식 조사 연구, 승가, Vol.12, pp.321-334.
- 민형동(2007),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 형성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준성(2004), 한국사회의 종교에 대한 신뢰와 불신 인식 연구: 토착심리학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성·김의철(2003),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신자간의 신뢰 인식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pp.197-198.
- 사미자(2001), 종교심리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석묘주(1989), 동국대학교의 발전과 조계종단의 역할, 東國思想, Vol.22, pp.79-94.
- 유영옥(2007), 상징과 기회의 사회과학, 서울: 홍익사.

- 유우열(2006), 중고등학생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분석,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태용(1994), 기업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7 No.1, pp.29-54.
- 유태용(1995), 기업이미지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8 No.1, pp.141-159.
- 유태용·이종구(1996), 대학이미지를 나타내는 특성용어들의 요인구조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9 No.2, pp.41-60.
- 유태용·이종구(1997), 대학이미지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 및 대학간 이미지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0 No.2, pp.31-54.
- 윤원철(2007), 불교학과 종교학, 불교학 연구, 제18호, pp.19-40.
- 이장송·김성경·정현숙(2003), 종교간 상호 인식 양태에 관한 연구: 한 특수대학 학생들의 종교간 태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1, No.1, pp.263-290.
- 이진구(2000), 근대 한국 개신교와 불교의 상호인식, 종교문화연구, 제2호, pp.145-164.
- 이혜경(2006), 행정이미지의 형성요인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민원행정서비스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원철(2000), 정부이미지의 측정 및 비교에 관한 실증적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와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09), 바람직한 승가상 정립을 위한 조계종 승려 의식 성향 조사, 불교신문, 2009. 10. 19자(출처:http://wooribulgyo.com/new_view.jsp?ncd=1870.)
-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1999), 청소년 종교 의식 조사, 현대불교 불기2549년 9월 1일 236호(출처:<http://www.buddhapia.co.kr>)

- 조기룡(2004), 불교지도자의 리더십이 사찰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훈(2003), 한국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의 구성요소에 대한 한 연구, 통합연구, Vol.16, pp.193-224.
- 조은희(2003), 정부브랜드 이미지의 측정에 관한 연구-척도개발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갤럽(2005), 2004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서울: 한국갤럽.
- Albert, S. and Whetten, D. A.(1985), Organizational identity,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7 , pp.263-295.
- Collins, G. S.(1981), *Psychology and Theology: Prospects for integr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 James, W.(1929), *The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 A study in human nature*, New York: Modern Library.
- Oates, W. E.(1973), *The Psychology of religion*, Texas: Word books.
- Osgood, C. E., Suci, G. J., et. al.(1965), *The measurement of meaning*, Urbana, III: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Reyonld T. J. and Gutman, J.(1984), Advertising is Image Management, *Journal of Advertising Research*, Vol.24.
- St. Clar, M.(1994), *Human relationships and the experience of God: Object relations and religion*, New York: Paulist Press.

Abstract

The study on buddhism image of university students(II)

**- Focus on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students of
University Sponsored under the buddhist organization
and ordinary university in Chungnam region -**

Kwon, Jeongman

Ph.D.(AB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analyse on difference of perception between students of University sponsored under the buddhist organization and ordinary university in Chungnam reg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has raised. The reason that there is lately much discussion about the crisis for identity of University Sponsored under the buddhist organization and much application of ‘image-related’ researches.

Through for analyse on difference of perception by result of pre-research, this study shown for devices for uplift of University perception for Buddhism.

Futhermore, in institution-section, this study shown for devices for uplift of the crisis for identity of University Sponsored under the buddhist organization.

Key Words: Buddhism image, The difference of Buddhism perception,
The identity of University Sponsored under the buddhist
organization

2010년 5월 14일 투고

2010년 6월 2일 심사완료